

◆ 14년 11월 고2 A형 25~27번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시간을 원환적(圓環的)으로 표상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도 표상하는데, 전자를 ㉠ ‘크로노스적 시간’이라 하고 후자를 ㉡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시간에 대한 표상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주로 자연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천체의 원운동과 함께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은 이런 주기적인 흐름에 맞추어 삶을 영위한다. 즉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된다. 반면 인간이 주로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직선적으로 표상된다. 역사의 흐름은 일회적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의 순환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역사적 사건 자체는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시간 표상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흔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대비에서 본다. 볼트만이 고대 그리스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과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이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볼트만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삶을 기술하는 방식은 삶의 영역을 자연의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투키디데스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도 자연에서와 같은 내재적 법칙이 있어서 인간적 사건은 자연적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그리스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에는 신의 의지를 지향하는 인간의 삶과 목표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속에는 특정 방향과 목표를 전제하지 않은,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원환적 시간 표상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은 인간의 행위를 신의 계명에 대한 경외와 복종으로서 이해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신의 섭리로 진행된다. 신의 계명을 따르는 인간 삶의 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이끄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표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직선적 시간 표상은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끝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시간 표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어도 새해의 절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순환하면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새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이며 이는 시간의 단절적 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순환적 자연 속에서 직선적 역사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25.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의 핵심 이론을 소개하며,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2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시간의 표상에 대한 개념이다.
- ② ㉠과 ㉡은 모두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 ③ ㉠과 달리 ㉡은 삶의 종말 이후의 영원한 삶을 전제한다.
- ④ ㉠과 달리 ㉠은 주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다.
- ⑤ ㉠과 달리 ㉠은 자연보다 역사를 더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27. 윗글의 볼트만이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플라톤의 시간은 가시적인 천체 운동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결코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다. 천체의 규칙적 순환 운동은 시간을 재는 도구이다. 또 플라톤이 천체의 운동은 예지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한 것은 시간 지각이 이성적 인식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① 신의 섭리에 의해 예지되는 시간을 중시하고 있군.
- ② 자연의 흐름과 천체 운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군.
- ③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직선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군.
- ④ 헤브라이즘과 유사하게 가시적인 시간 지각을 전제하고 있군.
- ⑤ 특정한 목표를 전제하지 않은 원환적 시간 표상을 드러내고 있군.

- 출전: 소광희 저. 《시간의 철학적 성찰》

- 정답: 25. ④ 26. ⑤ 27. ⑤

◆ 05년 4월 고3 20~24번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기 의식을 지닌 존재이다. 자기 의식은 본질적으로 기억에 의존한다. 인간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미래에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확한 시간적 구분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억과 목적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르도뉴의 라스코 동굴을 비롯한 구석기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인간은 이미 2만 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목적 의식을 갖고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동굴에다 그림을 그린 것은 일종의 마법적 목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원시인들은 동굴의 벽이나 천장에다 동물 사냥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림으로써 시간을 고정시키고 또한 그런 사건이 미래의 다른 어떤 곳에서 또 다시 벌어지기를 기원했다. 그림을 통해서 원시인들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재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양태도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끊임없는 현재에 머물면서 동물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의 자

연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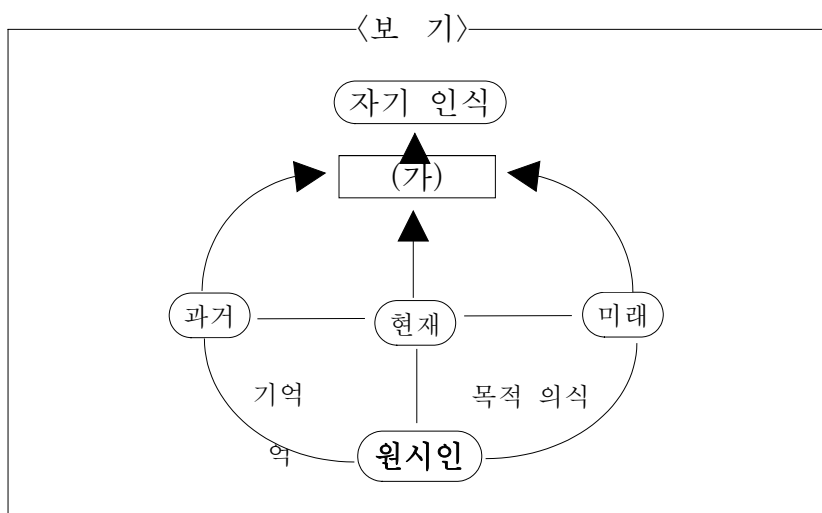
원시인들은 어떻게 그런 자연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폴 라댕은 『철학자로서의 원시인』이라는 저서에서 원시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기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행동하는 인간으로, 이들은 주로 외부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고 실용적인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며 내면에서 벌어지는 ㉠동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다. 또 다른 유형은 생각하는 인간으로, 늘 세계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싶어한 사람이다. ㉡행동하는 인간은 '설명' 그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며, 설명 설명한다고 해도 사건 사이의 기계적인 관계만을 설명하려 한다. 즉 그들은 동일 사건의 무한한 반복을 바탕으로 두고 반복으로부터의 일탈을 급격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생각하는 인간은 기계적인 설명을 벗어나 '하나'에서 '여럿'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서서히 변해간다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부 대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역시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상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상에 영원 불변의 형태를 부여해야만 했고, 그 결과 세상을 정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무시간적 사고'는 인간의 사고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각하는 인간은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늘 변모하는 사건들의 패턴 뒤에 숨어 있는 영원한 요소를 찾아내려고 했으며,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런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이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20.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 ②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대상의 속성을 구분한다.
- ③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일반적 인식의 모순을 비판한다.
- ④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부에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 ⑤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 행위의 의도와 결과를 연관지어 설명한다.

21.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회 의식의 정립
- ② 시간 관념의 형성
- ③ 외부 대상의 변화
- ④ 주술적 효력의 발생
- ⑤ 합리적 사고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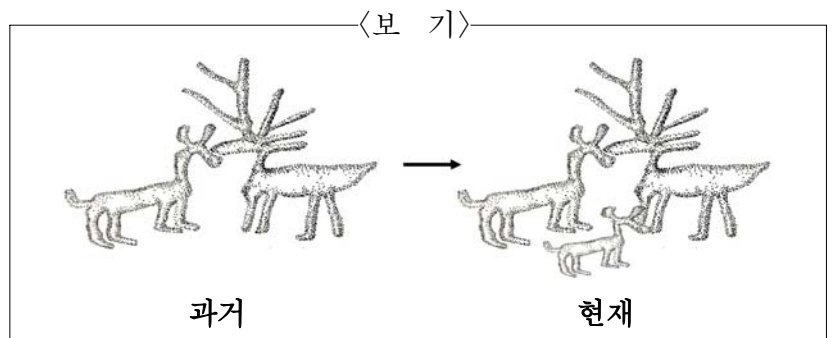
22. ㉠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의표(意表) ② 당위(當爲) ③ 현혹(眩惑)
- ④ 의문(疑問) ⑤ 당혹(當惑)

23. ㉢과 관련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대해 느끼는 감각은 개인마다 다르다.
- ②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기록하려 한다.
- ③ 인간은 자신과 주변 사물과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둔다.
- ④ 인간의 생활 양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수정된다.
- ⑤ 인간은 자연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모방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24. ㉡, ㉢가 <보기>의 현상에 대해 판단했음직한 내용을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는 사슴의 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믿을 거야.
- ② ㉡는 새로 태어난 새끼가 한 마리라는 것 자체에 주목할 거야.
- ③ ㉢는 현재에서 새끼가 없던 과거의 시절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거야.
- ④ ㉢는 새로 태어난 새끼가 수컷이므로 뿔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 ⑤ ㉢는 새로 태어난 새끼가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이 름을 지어줄 수 있을 거야.

◆ 14년 3월 고3 A형 16~18번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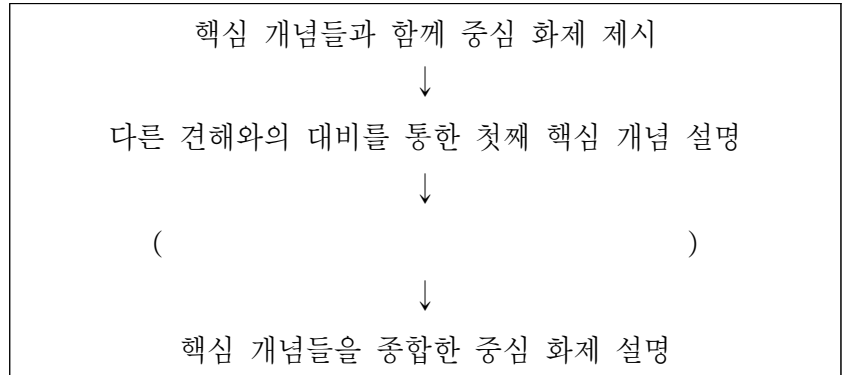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해를 위해서는 이해의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현대 해석학의 거장인 가다머는 '선이해'와 '지평 융합'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선이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일종의 선입견을 의미한다.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했던 ㉠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이라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선입견은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가다머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선입견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로 만들거나 제거할 수 있는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문화나 철학, 역사와 같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에 의해 형성된 사고를 뜻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이해의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선이해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이해의 과정은 어떠한가? 가다머는 이를 '현재 지평'과 '역사적 지평'이 결합되는 '지평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현재 지평이란 인식의 주체가 선이해를 바탕으로 형성한 이해로, 이해 주체의 머릿속에 형성된 지식이나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 반면 역사적 지평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이해의 산물로, 텍스트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지식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해의 과정이란, 서로 다른 두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의 융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어 나간다. 따라서 두 지평이 융합된 결과 형성된 지평은 주체가 기존에 가졌던 현재 지평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과정으로서 지평 융합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주체가 가진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평이 되고, 이것이 다음 이해의 선이해로 작용하며 또 다른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순환 과정을 고려할 때, 이해는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도상(途上)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가다머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16. 윗글의 논지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둘째, 셋째, 넷째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 ② 첫째 핵심 개념과 둘째 핵심 개념의 관계 설명
- ③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한 둘째 핵심 개념 설명
- ④ 첫째 핵심 개념과 대비되는 둘째 핵심 개념 설명
- ⑤ 둘째 핵심 개념을 통한 첫째 핵심 개념의 보충 설명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입견을 이성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 ②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각을 중시하였다.
- ③ 비이성적인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18. '가다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민수는 ㉠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 동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텍스트를 읽고, ㉢ 인간은 선악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민수는 인간 본성에 관한 ㉣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다른 텍스트를 읽고, ㉤ 인간 본성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 ① 민수가 ㉠라는 현재 지평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 지평과의 지평 융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② 민수는 ㉢와 ㉣의 지평 융합을 통해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 ③ 민수에게 ㉢, ㉣, ㉤, ㉥는 동일한 시점에 모두 역사적 지평으로 작용한다.
- ④ 민수의 현재 지평은 ㉢, ㉣와 순차적으로 지평 융합하면서 확장되어 간다.
- ⑤ 민수는 ㉤에 이르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게 된다.

◆ 16년 11월 고2 16~19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제2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음이 울렸던 순간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시간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點)과 같은 순간이므로 과거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의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라고 답한다.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후설(Husserl)에 따르면 현재가 ‘과거-원인상-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되는데, 이를 ‘현재화’ 작용이라고 한다. 원인상은 음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한다. 그런데 제2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들은 제1음은 변양된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 있다. 이처럼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과거이다. 또한 제2음을 들을 때 아직 듣지 않은 음을 예측하듯이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지이다. 예지는 충족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 따라서 제2음을 들을 때 제1음이 들었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평 형성에는 ‘현전화’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전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현전화에는 우선 회상이 있다. 과거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라진 것을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 회상이다. 또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라고 한다.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화와 융합되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어 생생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가 유기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관심이나 주의력에 따라 과거와 예지, 회상과 기대의 정도가 달라져 현재의 지평도 변한다. 예컨대 프로듀서가 휴양지에서 휴식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보다 음반 출시를 위해 음악을 들을 때 현재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화는 현재의 지평에 대한 통일적 인상을 변화시킨다. 제1, 2음을 들으며 제3음의 높낮이를 예측할 때, 그 세 음들에 대한 나름의 통일적 인상을 갖는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제3음이 들려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제1, 2, 3음에 대한 이전의 인상도 달라져, 그 세 음들에 대한 통일적 인상도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체험적 시간관을 통해 인간은 항상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된 사물을 보거나 ‘뻑’하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순간만을 지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지각하거나 회상과 기대를 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련한 스토리를 만들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고 보았다.
- ② 현재화는 현전화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다.
- ③ 과학적 시간관에서 현재는 점과 같은 순간이다.
- ④ 현전화는 현재의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 ⑤ 인간은 고정된 대상을 보면서도 스토리를 만들려 한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의식이다.
- ② 현재의 지평은 개인의 주의력과 무관하게 신축성을 가진다.
- ③ 과거는 잊힌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한다.
- ④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아는 통일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
- ⑤ 기대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지와 다르다.

18.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가)~(라)를 듣는 청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나모의 ‘합축-실현’ 이론에 따르면 청자들은 음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음 음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한다. 한 예로 세 음을 연속해서 들을 때, 앞의 음정이 ‘미’와 ‘솔’, ‘파’와 ‘라’ 사이처럼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일 경우, 앞 음정이 상행이면 뒤 음정도 상행, 앞 음정이 하행이면 뒤 음정도 하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파’와 높은 ‘레’ 사이처럼 앞의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이라면 앞 음정과 반대의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음정: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

(가)	(나)
(다)	(라)

- ① (가)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을 함께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가)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 ③ (나)의 제2음을 듣는 순간 일어난 예지가 제3음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 ④ (다)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 ⑤ (라)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 미리 당겨진 음에 대한 인상이 제3음을 들을 때 느낀 인상과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19. 윗글의 ‘후설’이 <보기>의 ‘브렌타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브렌타노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변양된 상태로 떠오르는데, 이는 지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직전에 본 장면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상상의 생생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 ①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 ② 직전에 본 장면을 떠올릴 때는 변양이 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 ③ 지각한 것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 ④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 ⑤ 시간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 연상은 생생할 수 없습니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후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자기만의 ‘지평’을 갖게 된다. ㉠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는 확장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나)

㉡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다.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메를로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신체, 즉 ㉢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메를로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는 몸이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현실적 몸의 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며,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 ‘몸틀’이라 하며,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며 현실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되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며 몸틀을 재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

한편 메를로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에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지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33.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두 글을 통합적으로 비교하기	ㅁ	

- ① ㄱ: ‘인식’과 연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하였음.
- ② ㄴ: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제시하였음.
- ③ ㄷ: ‘인식’과 관련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음.
- ④ ㄹ: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였음.
- ⑤ ㅁ: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음.

34.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식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 ②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 ③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 ④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지각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3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 ③ ㉠은 ㉡과 달리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은 ㉠과 달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⑤ ㉠과 ㉡은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36. ㉠의 이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몸의 경험은 연습의 양과 상관없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 ② 몸이 자전거 타기를 통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 ③ 자전거를 배우기 전과 후의 몸들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 ④ 몸의 지각은 현실적 몸이 의식과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⑤ 새로운 운동 습관이 내재될 경우 몸들이 재편되어 자전거를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느 날 산속에 피어 있는 꽃을 가리키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진달래꽃은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지곤 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물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라고 말하였다.

- ① 후설은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지평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겠군.
- ②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군.
- ③ 메를로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스승’의 말에 동의하겠군.
- ④ 메를로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고 생각하겠군.
- ⑤ 후설과 메를로퐁티는 모두 꽃을 보기 전까지 꽃은 마음에 없었다고 말한 ‘스승’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대상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12년 4월 고3 22~25번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과를 본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知覺)했을 때, ‘사과’는 지각의 대상, ‘철수’는 지각의 주체, ‘사과가 붉다’는 지각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주의는 인간의 정신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인과적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대상이 주는 자극과 대상으로부터 얻는 지각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 전제되어 있다. 철수가 사과를 지각하는 경험을 예로 들면, 대상인 사과에서 자극된 색깔의 요소가 철수에게 감각되고, 그 요소가 뇌에 전달되어 ‘사과는 붉다’는 식으로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주의의 관점으로는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사과를 회색으로 지각하는 경우처럼,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다. 달리 말해, 지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개념에 감각된 요소들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했다면, 철수의 정신에 존재하는 ‘사과’, ‘붉다’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감각된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다. 주지주의의 이론대로라면 정신 내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은 지각이 불가능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메를로 폰티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지각에 대한 설명을 비판했다. 그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에 비해 대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 오류를 범했고, 주지주의는 대상에 비해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의 공통된 원인은 지각 과정에서 지각 주체인 인간의 ‘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를로 폰티는 인간의 ‘몸’에 ㉢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몸’은 정신을 주관하는 주체이고,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지향성을 지닌 ‘몸’이라는 점에서, 생리학적인 몸과 구별된다. 그는 ‘몸’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학적 장’ 개념을 도입해 지각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각은 ‘몸’이 특정한 상황에서 대상과 마주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다. 즉, 의식의 주체로서의 ‘몸’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대상과 마주하는 장면이 ‘현상학적 장’이고, 이러한 ‘현상학적 장’에서 ‘몸’이 ㉣ 체험한 것이 곧 지각이라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의 관점에 따르면,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대상이 회색으로 지각된 것은, ‘몸’의 착각이나 시간과 공간 등의 ㉤ 변수에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인간의 의식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각도 ‘몸’이 의식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몸’의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메를로 폰티의 지각에 대한 설명은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틀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2.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심 용어를 설명하며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논의 대상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면서 논지를 종합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3.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 ① 경험주의는 대상과 지각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해명하고자 했다.
- ② 주지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재구성한다.
- ③ 메를로 폰티는 주지주의와 달리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지각을 설명한다.
- ④ 메를로 폰티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 ⑤ 메를로 폰티의 지각 개념보다 경험주의의 지각 개념이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4.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철수는 장미꽃이 놓인 식탁에 앉았다. 철수는 그 꽃을 빨간 흑장미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실내가 어둡다고 생각한 철수가 커튼을 걷고 보니 그 꽃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이었다.

- ①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장미꽃이 놓인 식탁’은 객관적인 세계에 해당하겠군.
- ② 주지주의의 관점에서는 ‘장미꽃’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식탁’보다 ‘철수’의 정신 작용을 더 중요시하겠군.
- ③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따를 때 동일한 ‘식탁’이더라도 시간이 달라지면 ‘현상학적 장’은 다른 것이겠군.
- ④ 경험주의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을 지각 주체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설명하겠군.
- ⑤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따르면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을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은 ‘커튼’이 쳐진 어두운 실내 공간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겠군.

25.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② ㉡: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 ③ ㉢: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 ④ ㉣: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
- ⑤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 17년 10월 고3 16~21번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저명한 프랑스의 현대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이 시각적인 예술이라는 통념을 거스른다. ‘생각하는 사람’은 작가가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면이 거칠며 시각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한 감상자는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시각적인 조각 작품을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 시사한다. 표면의 질감에 반응하는 촉각적 경험은 눈과 손, 코와 귀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우리의 ‘몸’을 전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몸(corps)의 철학’을 생각나게 한다. 메를로퐁티는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몸에 대해 ‘시각적 광경을 살아 있게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몸에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사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는 몸은 그저 물리적·화학적·생리적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의 경험을 ‘현상’과 관련짓는다. 그에게 현상은 객관과 주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을 ‘쨍그랑’ 소리와 그 소리가 난 원인에 ㉢ 주목해 어떤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소리를 지각하는 수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이 현상이 된다고 본다. 접시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아무리 큰 ‘쨍그랑’ 소리가 났더라도 그 진동을 소리로 지각하는 수용자가 없다면 소리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리라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인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그런데 현상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는 현상의 발생은 곧 ‘의미의 탄생’이라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독일의 철학자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활용한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에로 향하여’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 수용하여 지향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라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읽어낸다면 그것은 그 대상과 사건에 대한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지각은 단순히 감각 기관이나 두뇌의 활동이 아닌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령,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항상 어느 하나의 시공간적인 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나의 조망에는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모니터의 정면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이때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 또한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이라고 본다. 그는 지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를 ‘세계에의 존재(être au monde)’

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지각 활동을 통해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순수한 객관적 세계도, 순수한 주관적 세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만나 관계함으로써 지각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지각이 일어나는 장을 메를로퐁티는 ‘현상적 장’이라고 부른다. 현상적 장에서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활동은 사유보다 앞서는 몸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순간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긴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한다.

메를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데는 몸보다 인간의 추상적 정신 활동, 즉 지성을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서양 철학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을 ㉤ 폄하하고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는데, 메를로퐁티는 그에 반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성 또한 광범위한 몸의 활동의 일부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서양의 지적 전통과 대립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이며 또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 표현이다. 몸을 중시한 로댕의 작품은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로댕은 조각을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작품은 그저 시각적 충격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은 관람객과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은 몸과 분리되어, 작품과 몸의 밀착된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주체가 되는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연계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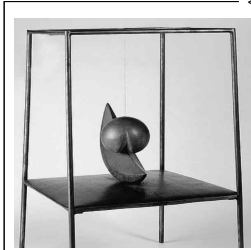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작품이 창작된 계기를 소개하며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특정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며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예술 갈래의 특징을 제시하며 그 갈래와 연관된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특정 예술 갈래의 예술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철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⑤ 특정 작품에 활용된 철학적 제재의 특성을 밝히며 그 제재가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어 온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17. 윗글의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각의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니다.
- ② ‘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비롯되는 근원이다.
- ③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만든다.
- ④ ‘몸’은 다양한 감각의 소통과 통일을 이루는 작용의 주체이다.
- ⑤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과 달리 ‘지성’보다 ‘몸’을 더 중시해야 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코메티, 'suspended ball'

< 보 기 >

이 작품은 두 개의 돌조각이 불안정하게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승달 모양의 비스듬하게 누운 돌 위에 흠이 파인 공 모양의 돌이 배치되어 아래에 있는 돌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는, 관람객에게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한 위태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느낌은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시각이 아닌 '몸'을 겨냥해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나타낸다.

- ① 아래에 위치한 돌조각이 관람객에게 '초승달과 닮은 돌'이라는 의미로 지각된 순간은 작품이 '현상'이 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두 개의 돌조각이 포개져 있는 것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현상적 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작품이 관람객에게 위태로움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지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관람객이 위쪽에 있는 돌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면 관람객의 '몸'에 친구들과의 공놀이 체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관람객이 아래쪽 돌의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각했다라도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9. 윗글의 메트로폰티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와 B는 ○○밴드의 공연장에 함께 갔다. A는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해 공연장에서 그의 베이스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연이 끝난 후 A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도 좋았지만 베이스 연주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자, B는 베이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A가 그 까닭을 묻자, B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소리에 빠져 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 ① A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지각되었다.
- ② B와 달리 A는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 활동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
- ③ B와 달리 A의 '몸'은 가수의 노랫소리라는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하지 않았다.
- ④ A와 달리 B에게는 베이스 연주 소리가 공연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었다.
- ⑤ A와 달리 B는 의식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 베이스 연주 소리를 못 들었다.

20.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작품에 몸이 반응해 관계 맺음이 가능하려면 작품과 몸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은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어렵게 만든다.
- ④ 작품에 대해 몸이 반응해 관계를 맺으려면 '지각'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사유는 작품과 몸의 관계 맺음을 촉진해 몸과 작품의 관계를 밀착시킨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 ②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 ③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④ ㉡: 옳다고 인정함.
- ⑤ ㉢: 가치를 깎아내림.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은 근대 과학의 양적인 크기를 중시하는 사고를 ㉠ 수용하며 발달했다. 고대 과학이 사물 변화의 질적인 부분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근대 과학은 갈릴레오의 “자연이라는 책을 펴 보라. 거기에는 수(數)라는 글자로 가득 차 있다.”라는 발언에 나타나듯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즉 양화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대 과학은 미리 수학적으로 설정한 믿음을 통해 자연에 접근하였다. 일례로 케플러는 우주가 기하학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에 따라, 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연 세계에 대하여 기하학과 같은 수학적 관점의 선형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로 세계에 접근하려 하였다. 직관은 ‘순수한 정신의 의심할 여지없는 파악이며, 이것은 오직 이성의 빛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의심 없이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대상을 직관으로 분절하여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고, 이 단순 본성들을 복잡한 개념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 확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근대 철학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러한 근대 철학의 흐름에 반발한다. 그는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키며,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으로 쪼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베르그송은 세계의 사물들이 서로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서로 수많은 관계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성이 이러한 세계를 분절시킴으로써 전체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에 대한 통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세계를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 대신 ㉣ 직관과 지속을 제시한다. 그의 직관은 공감적 경험이 자 통합적 경험을 의미한다. 즉 그의 직관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 서로를 느끼게 되는 공감적 경험을 통해 각각의 이질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스며가면서 전체를 향해 통합되는 경험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렌지색에 공감하는 과정을 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직관을 통해 공감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면, 가장 어두운색으로서의 붉은색과 가장 밝은색으로서의 노란색 사이의 이질적인 다양한 색들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시 그것들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스며가면서 통합되는 과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베르그송은 공감과 통합은 지속되는 시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시간을 분절하여 공간 안에 정지된 상태로 보았지만, 베르그송은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적인 것이 시간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다는 주장을 하였다. 예를 들어 활짝 핀 장미꽃을 볼 때, 우리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미꽃을 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모두 떨어진 가지만을 보게 된다. 이전에 장미꽃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비었고, 이는 시간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

이 양적인 변화를 담은 시간이 아닌 개인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임도 주장하였다.

미술사에서 이러한 베르그송의 철학과 유사성을 가진 사조가 인상주의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색을 ㉤ 혼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색들을 합치는 대신 각각의 이질성을 살리면서 색들의 경계를 흐리게 표현하여 한 가지 색이 다른 하나의 색으로 감상자의 눈에 의해 분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섞여 들어가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평면의 그림판에 그려진 그림이 3차원적 입체감을 갖도록 개발한 원근법과 같은 기법을 자제하고 색채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더불어 인물화 속에 지성을 통해 ㉥ 포착된 인물의 위대함이나 교훈을 담으려 했던 고전주의와 달리 대상의 인상을 표현하려 한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의미도 없다. 오로지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라는 색채의 미적 효과를 위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나체의 여자’를 그렸다. 고전주의에서는 풍경이 인간과 인간 행위의 배경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인간도 독점적 지위 대신 배경의 일부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대상에게 받은 인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상에게 받은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었지, 그 대상이 인간인지 풍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색들을 합쳐 만든 중간색은 편견이므로 이를 해체해 고유의 색으로 되돌린 후, 빛이 연출하는 색채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대상에 어떤 의미나 교훈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인상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베르그송이 이야기한 근대 철학이 가져온 지성에 의한 분절로부터의 회복과, 이질적인 것의 연속 안에서 공감을 통한 통합으로 전체성을 느끼는 것과 ㉦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후, 비판에 대한 재반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견해가 지닌 부당함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시대 순으로 비교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의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과 연관된 다른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시한 후,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그 이론의 장단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은 변화를 겪는다.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차원주의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을 ㉠ 영원주의자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 혹은 표상의 차이를 가져 온다. 영원주의자들에게 매 순간은 시간의 퍼즐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처럼 이미 주어져 있다. 영원주의자에게 시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는 앞 또는 뒤라는 관계만이 존재한다. 현재는 과거의 뒤이고 동시에 미래의 앞일 뿐이다. 영원주의 세계에서 한 사람은 각 시간 단계를 가지는데, 그 사람이 없던 수염을 기르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다. 외모의 차이는 단지 그 사람의 서로 다른 단계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반면에 3차원주의자는 시간이 흐른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시간이 흐른다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는 모두 다른 의미나 표상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는 이들 중에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이 바로 현재주의자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주어진 현재만이 존재한다.

시간여행은 시간에 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이다. 현재주의자에 따르면, 현재에서 과거, 미래의 특정 시점을 찾아가는 것은 영원주의자의 생각처럼 시간 퍼즐의 여러 조각 중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 현재주의자 중에 다수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시간여행을 하려면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흘러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실재하지 않는다. 이를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주의자 중에도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시작하는 현재 시점 T_n 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 T_{n-1} 은 실재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여행자가 T_{n-1} 에 도착할 때 그 시점은 그에게 현재가 되어 존재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과거를 마치 현재인 양 여기게 하는 속임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과거 시점 T_{n-1} 에 도착한다면, 과거는 이제 현재가 된다. 그러나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따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재는 애초에 출발하는 시점인 T_n 이지 과거의 도착지인 T_{n-1} 이 아니다. 만일 T_{n-1} 이 현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T_{n-1} 에 도착한 사람에게 T_n 은 이제 미래가 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주의자는 미래의 비존재를 주장하므로, T_{n-1} 에 도착한 시간여행자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도착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이다. 결국 3차원주의 세계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믿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비존재’를 ‘출발지 미결정’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간여행자가 과거 T_{n-1} 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실재하지 않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미결정된 미래로부터 현재로 이동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전혀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시간여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T_{n-1} 에 도착하는 사건의 원인이 T_n 에서의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T_{n-1} 에 도착하는 순간 미래 사건이 되는 시간여행은 도착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미래는 계속 미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여행 여부에 따라 미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 조건부 결정론자는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가 해소되어 시간여행에 걸림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여행이 3차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고수하는 이들은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로 대체하여 이를 해소하는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9.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
- ② ㉠과 ㉡은 모두 시간여행에서 과거에 도착하는 순간 출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과 ㉢은 모두 과거로 출발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④ ㉡과 달리 ㉢은 시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 ⑤ ㉢과 달리 ㉡은 시간여행에 필요한 도착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20.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차원주의자 중에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 ② 현재주의자는 누군가의 외모가 변한 것을 보면 이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③ 4차원주의자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으로부터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⑤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3차원주의자는 우리가 미래에 도착하는 순간 도착지가 생겨난다는 주장에 대해, 그 경우에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밴드 결성 전, 존 레논은 자신이 유명한 가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진 레논은 마침 타임머신 실험 소식을 듣고 10년 후의 미래로 가고자 자원하였다. 10년 후, 그의 밴드는 유명해지고 데뷔 이전 머리가 짧았던 그는 긴 머리를 가지게 된다. 만일 10년 후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방문한 무명의 레논은 장발의 록 스타인 자신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것은 서로 구별될 수 없다.'라는 ㉠ 원리에 위배된다. 즉 '동일한 사람이 무명이면서 동시에 스타이다.'라는 ㉡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레논은 10년 후로 시간여행을 할 수 없다.

- ① 시간여행의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를 경우, ㉠에 위배되는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겠군.
- ② 레논의 서로 다른 단계 중에 현재 단계가 뒤의 단계를 방문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영원주의자에게 ㉡는 문제가 되지 않겠군.
- ③ 조건부 결정론자의 논리에 따를 경우, 레논이 미래에 도착하면 자신의 10년 후 모습을 직접 보기 이전이라도 도착 순간에 이미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소되겠군.
- ④ 미래에 도착하는 시점의 레논과 미래에 있던 레논이 동일한 외모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주의자는 ㉠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군.
- ⑤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은 제3의 관찰자가 볼 때는 동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시간 흐름에서는 동시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현재주의자 중에는 ㉡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군.